

# 구매자의 후회 - 거대 앱 기업들, 유럽에서 뿌린 대로 거두다

이런, 이런, 이런... '뿌린대로 거둔다'고들 하죠.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 규정 준수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깨어 있는 DMA 옹호자들은 대충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대놓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겠죠. 주요 앱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앱 제작사들이 본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신 이들은 Apple 이 발표한 DMA 규정 준수 계획과 관련해 Apple 이 유통 비용을 계속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에 당혹감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이 이것이야말로 거대 앱 제작사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닌 다른 앱 시장 참여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 말입니다. 바로 정부 명령으로 인해 비용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즉 '공짜 점심'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얼마나 진지하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거대 앱 제작사들은 DMA 실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습디다(중요 포인트!). 다른 정부들이 이를 인지하고 정책을 세우기에는 말이지요. AICOA(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OAMA(Open App Markets Act, 오픈 마켓 법) 같은 법안을 비롯해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DMA 와 같은 형태의 개입을 요구 받고 있는 지금, 이번 경험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훈 1: DMA 와 같은 형태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DMA 제 6 조 제 4 항에 따르면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제 3 자 앱 스토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규제 당국이 이러한 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현재 스마트 기기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상식적, 사전 예방적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DMA 는 '하드웨어 또는 운영 체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기에 예외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Apple 의 DMA 규정 준수 프로그램은 공적 인증을 통해 앱이 '앱 개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고 모조품이 아님을 인증하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유럽 규제 당국이 위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데 어떤 문제가 따르는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 공적 인증은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보증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 인증만으로는 자녀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공적 인증이 권한 심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권한 심사](#)는 앱이 요청하는 데이터의 범주가 앱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앱 스토어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권한 심사가 있기에 기기 침해 및 개인정보, 신원 또는 금전 도난을 노리는 앱 상당수가 앱 스토어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단계를 경쟁업체에 개방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통합 솔루션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경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들이 다른 대안을 체치고 수직 통합 솔루션을 선택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DMA 하에서 여러 기능 가운데 바로

이 한 가지 기능에 대한 경쟁은 규제 당국이 만들어 낸 개별 기업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OAMA 는 운영 체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 불허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적 인증을 포함한 DMA 규정 준수 계획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OAMA 에서 허용하는 '최종 사용자에게 대한 제 3 자 앱 또는 앱 스토어의 진위 여부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제공은 적극적 항변에 의한 것에 한합니다. 즉, 플랫폼이 공적 인증이 제 3 자를 '배제하거나, 제 3 자에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그 외에도 여러 사항을 입증해야 함). 해당 문구 때문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이를 항변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들여 소송을 하지 않는 한, 공적 인증은 아득히 먼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Apple 이 제조한 스마트 기기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제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는 시도이며, AICOA 와 OAMA 의 초안은 모두 이러한 조치가 경쟁을 해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습니다.

*교훈 2: 의회가 이러한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지금, DMA 형태의 개입은 자녀 보호 기능과 온라인 안전성을 약화할 것입니다.* 공적 인증과 DMA 하 완료된 요건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제 3 자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앱에 대해 플랫폼 수준의 자녀 보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DMA 에 따라 모든 자녀 보호 기능이 해당 앱이 다운로드된 대체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녀가 어떤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지 감독하기 훨씬 더 어렵게 됩니다. 이는 새롭게 생겨날 자녀 보호 기능에도 부담이 될 텐데, 여기에 형식적 관료주의로 인한 부담까지 더해지면 종종 그러하듯 새로 생겨난 보호 기능조차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 현행법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기를 설정하고 [자녀의 스마트 기기에서 앱 다운로드, 구매 또는 앱 사용 내역을 검토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복잡해질 것이며 제 3 자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한 앱에는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잘 구축된 대체 앱 스토어들조차 일부는 [적극적 아동 개인정보 침해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한 그 결과 자녀 보호 및 감독 기능을 회피할 목적의 대체 앱 스토어를 만드는 데 앞서 언급한 자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자명합니다. 결국 DMA 절충안은 부모가 온라인 공간에서 자녀를 보호할 강력한 툴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부모 역할을 의도적으로(부수적인 것이 아님) 지금보다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대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훈 3: DMA 형태의 개입은 위에서 말한 비용을 소규모 개발자에게 전가합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는 AICOA, OAMA 와 같은 DMA 방식의 법안이 [유통 비용을 소규모 개발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경고해왔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앱 제작자는 더 많은 스토어를 위해 앱을 개발하고, 다양한 앱 스토어의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스마트 기기에서 뭔가 구매할 때 전반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되겠지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비용에 관한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앱 스토어에 필수 제공 의무(must-carry

mandates)를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었던 주 입법 청문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앱 제작사에 부과되던 인앱 구매 수수료를 없애면, 모든 앱 제작사에 수수료가 전가되어 소규모 앱 제작사가 부담하는 비용과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진다." 당시 한 의원은 앱 스토어가 개발자에게 수천 달러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여 모든 개발자에게 비용이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앱 제작사들이 앱 스토어를 유지하고 앱을 유통하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판단한 거죠. 물론 이러한 제안은 공공 정책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대규모 앱 제작사가 부담하는 앱 스토어 비용은 사실상 전부 사라지는 한편, 소규모 앱 제작사의 앱 스토어 수수료는 (다소 불공평하게도) 현재의 100 배 이상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거대 앱 제작사들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일부나마 얻었으므로 임무를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MA 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DMA 규정 준수 계획들을 보면 거대 앱 제작사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은 반면, 소비자와 소규모 앱 제작사들의 형편이 나아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제 전 세계 정부가 이 움직임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 자본,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세금, 소비자 가치, 앱 유통 가치의 방대한 유출을 대가로 한, 거대 앱 기업의 비용을 약간 낮추는 것 외에는 눈에 보이는 혜택이 거의 없는 이 움직임을 말이죠.